

미디어를 통해 생각과 마음 키우기

강 용 철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겸임교수

- I. 마음으로 여는 시의 세계
- II TV동화를 이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 III. 짧지만 강력한 미디어
- IV. 테마를 정하고 만드는 주제 영상(UCC)
- V. 창의성을 발현하는 사진과 광고
- VI. 인쇄 공익광고 만들기
- VII. ‘마음의 소리’와 ‘가치 사전’
- VIII. 신문과 함께 하는 감성 훈련

I. 마음으로 여는 시의 세계

1. 생활 속의 시

시 험 과 엄 마 최세환 (중3학생)	수 능 날 정선현 (남양주 광동중고 2)
울엄마 내가 중학생 되자 무서워졌다 엄마가 아는 애들은 왜 그리도 공부를 잘하는지 어디 갔다오시면 뭐 하는 거냐고 혼낸다 책상 앞이 아니면 덕분에 TV 볼 때도 마음대로 못 보고 밥 먹을 때도 편안히 못 먹는다 시험기간에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시험 결과 나오면 일주일만 모자관계 끊는다 나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무한 경쟁 이놈의 시험 없어져라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진다.	11월 7일 수능날 떠들썩했던 하루를 뒤로 하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집으로 들어섰다. 들어오는 나를 보며 아버지께서 내 등을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내년엔 잘보면 되지..”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더욱 고개를 푸욱 숙이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사실 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빠듯한 생활로 인해 나에게 조금 무관심하셨던 아버지께선 내가 고3인줄 아셨던 것이다. 약 2주가 지난 지금 결국 난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실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두 학생은 각각 시를 통해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로 직접 표현했을 때와 시로 전달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 ㉡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로 적어 전달하도록 해 봅시다.

2. 시낭송 플래시를 활용하기

가. 유명한 문학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문인들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나. 문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여 문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상시와 영상소설을 감상합니다.

(플래시를 감상할 경우, 내 컴퓨터의 임시폴더에 플래시가 저장됩니다. SWF Cache Viewer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당 플래시를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영상자료의 경우는 저작권을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 문학창작 사이트, 블로그, 카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누리꾼들과 함께 공유-댓글달기의 활동을 합니다.



3. 직접 시낭송 영상 만들기

가. UCC 제작 프로그램,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중생들이 비교적 쉽게 시낭송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윈도우 무비 메이커, 알씨 등)

- 1) 문장웹진 <http://webzine.munjang.or.kr/>
- 2) 문장 <http://www.munjang.or.kr/>
- 3) 온라인 청소년 문학관-문장 글틴 <http://teen.munjang.or.kr/>
 낭송 문장 <http://nangsong.munjang.or.kr/>

나. 전국청소년시낭송축제-사이버 문학광장(<http://nangsong.munjang.or.kr/>)의 학생 작품을 견본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다. 영상 만드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고 시를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II. TV 동화를 이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1. 글쓰기를 위한 동기유발 이야기

- 화창한 봄날에 거지에게 생긴 일
- 얼음이 녹으면?
- 누군가와 헤어진 날! 창가에 앉아서.

--

2. 짝꿍 게임과 1분 글쓰기

- 토끼와 거북이
- 1분 글쓰기

※ 순환 글쓰기를 통한 창의적 모형

※ <나의 자랑 50가지>를 통해 깨달은 <글쓰기, 글짓기>의 중요함.

3. TV 동화를 활용한 웃음-감동 글쓰기

가. 개요

전통적 방식의 글쓰기는 교사의 직접적인 지시나 주제 제시에 의해, 학생들이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과 같이 인지적 영역의 연상 작용과 다양한 생각 넓히기 활동이 글쓰기에 대한 동기유발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글쓰기라면 어렵고 힘들다는 선입견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도 교실에서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이 글쓰기 모형은 MIE(MIE란 ‘Media In Education’의 약자로, 넓은 의미로는 모든 미디어 매체-신문, 만화, 잡지, 음악, 영화, TV,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를 통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미디어 활용교육’을 뜻함)을 글쓰기 수업과 연결한 것입니다. 즉 인터넷 세대인 학생들이 즐겨보는 동영상과 플래시를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이것을 글쓰기 수업과 연결시키는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나. 수업 진행 및 방법

‘글쓰기는 딱딱하다, 어렵다’는 학생들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수업의 초기에는 ① 학생들에게 감화를 주는 문학이야기와 ② 동기유발을 위한 1분 글쓰기 시합, ③ 짝꿍과 함께하는 국어놀이, ④ TV 동화 행복한 세상을 통한 글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삶과 자신의 이야기를 글쓰기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고, 인성교육과도 연계된 통합교과적 글쓰기 수업으로 작문실력과 사고력,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참조)

다. 학습효과 및 의의

- 전통적 글쓰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로의 전환
- 흥미와 즐거움이 함께 하는 수업

<응용활동>

감동이 숨 쉬는 뮤직비디오

가) 개요

뮤직비디오 하면, 가수들의 자신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 제작물이 라고 생각합니다. 가수들 또한 많은 인기와 흥행을 위해 자극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하지만, 일부 뮤직비디오는 학생들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스토리, 플롯)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리의 구조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나) 수업 진행 및 방법

- ① 하나의 완결된 줄거리가 있는 뮤직비디오를 선정합니다. 오늘은 예시로 김장훈이란 가수의 '미안해'란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예-GOD의 '어머니께' 등)
- ②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고, 작품에 나온 인물, 사건, 배경을 작성하게 합니다.
- ③ 다른 인물의 관점이나 다른 결말로 이야기를 작성하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합니다.<붙임 2> 참조)

Ⅲ. 짧지만 강력한 미디어

- 즐거운 학교의 <감동 플래시 생각 수업>4)



- 감동 플래시로 독서 의욕 자극하기
- EBS 지식채널5)
- 각종 블로그, 외국 공익광고 영상 등

Ⅳ. 테마를 정하고 만드는 주제 영상(UCC)

- 가. 학생 스스로가 영상의 주제를 먼저 정하게 합니다.(예시-봉사, 진로 등)
- 나. 간단한 영상의 줄거리를 구상하고 세부적인 스토리보드를 짜도록 합니다.

비디오		대사 및 해설	사운드
화면	화면 구성 및 전개		
	타이틀 한국중학교, 그곳을 알려주마!		뉴스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
<p>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맡은 ***입니다. 한국중학교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예, 많은 학생들이 한국중학교에 대해 궁금해 해서 저희 기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김 기자! 나와주세요.</p>	<p>1. 두 명의 아나운서가 화면에 등장</p> <p>2. 뒤편 칠판에 '뉴스'라는 글자 제시</p>	<p>아나운서 :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맡은 ***입니다. 오늘은 한국중학교에 대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아나운서 : 예. 많은 학생들이 한국중학교에 대해 궁금해 해서 저희 기자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김 기자! 나와주세요.</p>	뉴스 음악이 나오다가 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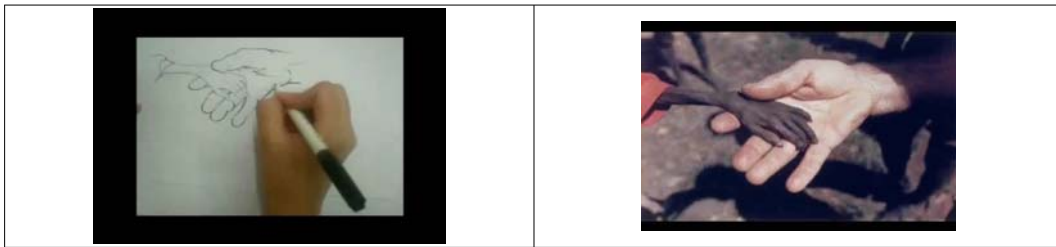
4) 즐거운학교, http://www.njoyschool.net/main/P_index.asp

5) EBS, <http://www.ebs.co.kr/index.jsp>

<촬영 대본의 예시-학교 홍보물 만들기6)>

다. 영상에 필요한 각종 자원(그림, 글, 사진, 영상)을 수집합니다.

라. UCC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시연하고 수정합니다.



V. 창의성을 발현하는 사진과 광고

1. 포토 스토리텔링

가. 사진으로 나의 가장 자신 있는 부위 찍기 / 이유 적기

- 아이들에게 신체의 중요함과 자아존중감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신체 중 돋보이는 부분을 찍고, 그 이유를 적게 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며 읽어보고, 사진과 이유가 잘 표현된 작품을 고르도록 합니다.

나. 테마가 있는 표정 사진

- 내가 지을 수 있는 얼굴 표정을 최대한 많이 찍어보게 합니다.
- 친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친구가 짓는 다양한 표정을 찍습니다.
- 테마와 주제를 정해서 그 표정에 맞게 사진을 찍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오늘의 포토제닉'을 선정해 봅니다.

다. 포토 스토리텔링 / 포토스탠딩

- 주제를 정하고 사진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합니다.
- <사진+글>이 결합된 형태가 되도록 권장하고, 줄거리의 내용이 명확하고 잘 표현되도록 지도합니다.
- 교사가 재미있는 질문을 제시한 후, 모둠별·개인별로 무작위 사진을 선택하게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과 사진의 내용을 어떻게든 연결하라고 독려합니다.

6) 필자 외, 미래엔컬처(구 대한교과서),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2학기 2단원 홍보의 세계

- 엉뚱한 사진을 가지고도 멋진 답을 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칭찬하고 발표를 시킵니다.

2. 창의성을 키우는 광고 사진



<외국 인쇄(사진) 광고의 예>

VI. 인쇄 공익광고 만들기

<공익광고의 아이디어 생성 과정>

<주제 : 이웃 사랑>

- 이웃 사이가 멀어졌다는 의미이니까, 실제 거리가 멀어졌다는 소재를 떠올려보자.
- 이웃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관심과 표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자.

☺ 광고의 언어 표현과 이미지 구성하기

(1) 이미지 구성

- 거리가 멀어졌다는 생각을 기차길로 표현하자.
-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서 이웃 간에 교류가 적으니까 아파트를 배경으로 하자.
- 이웃 사이를 기차길로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자.

(2) 언어 표현

- 중심 문구를 ‘이웃길은 천리길?’로 하자.
- 보조 문구에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를 직접 넣어 강조하자.



<인쇄광고>-이웃집은 천리길?7)

Ⅶ. ‘마음의 소리’와 ‘가치 사전’

가. 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명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의미하게 구성된 MP3 파일을 활용합니다.

나. 각 테마 주제별로 구성된 ‘마음의 소리’를 파일을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듣게 합니다.

다. 가치 사전이라는 책의 견본을 보여주고 방송에서 전달하는 도덕적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 - 배려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손전화를 꺼 두는 것. 배려란, 화분을 햇빛이 드는 곳으로 옮겨 주는 것.

- 채인선, <아름다운 가치사전> 중에서)

라. 사전과 다르게 자신만의 언어로 도덕적 가치 개념의 정의를 내리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한 사례나 자신만의 독특한 정의를 내리도록 독려합니다.

※습관이 나를 만든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 박경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된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미국의 투자가 워렌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10년 후의 ‘나’를 만듭니다. 올바른 습관을 창조하는 것은 세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란 나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사고나 습관 등에서 남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약간만 연습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을 눈여겨 보았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타인의 습관이나 행동 가운데 비난받을 만한 것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습관이 가진 위대한 힘의 진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창조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것도 알아야겠지요? 행동과 습관은 ‘복리(複利)로 계산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치사전

<가치 사전> 만들기

※ 여러분은 모두 장애물을 뛰어넘고 시련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꿈’, ‘희망’, ‘의지’, ‘고난과 시련의 극복’, ‘노력’ 등에 관한 가치 사전을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

‘노력’ 에 관한 가치사전

나의 노력

난 성적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앞으로 계속 이래오의 성적이려면 희망하는 대학에 떨어질 것 같은 문영강에 더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 애플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공부든 해야겠다고 생각 했고, 노력했다. 그 결과, 이번 시험에서 전 보다 훨씬 나은 시험 결과를 받았다.

‘노력’ 이란?

연습에 있어서 항상 피로한 것

공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갈게 만드는 것

공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갈게 만드는 것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노력은 경제 배신과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막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노력이 필요하다.

마. 중고생의 경우는 방송듣기-나만의 가치사전으로 정의내리기-신문, 도서, 인터넷에서 가치 찾기 등의 응용활동이 가능합니다.

Ⅷ. 신문과 함께 하는 감성 훈련

7) 필자, EBS 중학교 1학년 비문학, 2010.

광고출처-한국방송광고공사, 아이디어 생성 과정-집필

8)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소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가. 2010년 12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한 ‘신문읽기와 창의적 글쓰기’의 모듈을 학교급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나. '신문에서 길 찾기, 멋진 인생 만드는 비법, 함께 사는 세상, 사랑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모습' 등 각 테마별로 학생들의 인성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주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⁹⁾

[활동1] 상처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넌 최고야. 넌 멋져. 정말 착하구나. 네가 있어서 정말 기뻐.”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친구들보다 못하는구나.”

금세 여러분의 표정이 정반대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말은 짧지만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상처를 주는 말은 마음에 깊은 골을 만들고 평생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을 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아이스크림이 녹듯 스르르 녹여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처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이라는 주제로 신문 속에 담긴 내용과 우리 삶 속의 문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부모님! 시험을 보고 집에 온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요?”

“아유, 선생님도……. 뭐 그런 것을 물으세요. 당연히 시험 잘 봤는지, 문제는 어려웠는지를 물어보지요.”

“어머님, 다음에는 아이들이 시험보고 왔을 때 ‘수고했다. 힘들었지?’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괜찮았니?’라고 물어만 보셔도 아이들은 자신의 처절한 성적에 대해 열변을 토한답니다.”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서 학부모 특강을 할 때의 일이다. 강의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은 모두 교육열이 매우 높으셨고, 그 날 강의 주제인 <부모님의 화법>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셨다.

위의 대화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결과 중심적 질문을 하거나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거나 조금만 완곡하게 돌려 말하면 아이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9) 강용철 외, 신문읽기와 창의적 글쓰기,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10) 필자, 강용철의 교육칼럼, 한국일보

의 장을 만들 수 있다.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말투나 화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비교화법’으로서 다른 대상을 내 아이와 비교했을 때 흔히 생기곤 한다. ‘옆집 아무개는 이번에 몇 등 했다더라.’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옆집의 철수나 영희가 성적과 태도에 대한 비교의 대상이 되어 늘 아이들을 주눅 들게 한다.

이웃 간의 비교보다도 형제간의 비교와 같이 가까운 인물에 대한 ‘비교화법’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응어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비교화법이 학생들에게 경쟁심과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안겨준다.

그런데 아이들 또한 부모님들을 비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옆집의 아무개는 이번 여름휴가를 외국으로 다녀왔는데, 우리는 늘 집에서 벽지의 무늬만 바라보고 있냐는 등의 ‘비교화법’은 어른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서로를 자극하고 상처 주는 화법은 지양해야 할 언어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실망과 좌절을 확인시켜주는 ‘단정적 화법’도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화법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실수에도 ‘넌 왜 그 모양이니?’, ‘그럴 줄 알았어’와 같이 학생의 불안한 마음에 쐈기를 박는 ‘단정적 화법’은 아이들을 더욱 작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결과 때문인지 교실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의 언어 속에도 부정적 사고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필자는 늘 ‘응, 안된다.’라고 말하곤 한다. 질문의 방식 속에 안된다는 부정적인 가치관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선생님! 이거 해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부정의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로 변모하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이리라.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화법이 부정이 아닌 긍정을 지향했으면 한다. 희망을 주는 긍정의 언어를 통해 아이들에게 칭찬샤워를 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전달법, 쪽지 대화, 칭찬샤워를 추천하고 싶다. 또한 언어와 행동을 정지-생각-선택하는 STC(Stop-Think-Choose)의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릴케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희망을 주는 긍정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희망은 일상적인 시간이 영원과 속삭이는 대화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내 곁에 있다. 나의 일상을 점검하자! - 릴케>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국어과 교사 yongchury@hanmail.net, 한국일보, 2006-09-10¹⁰⁾

활동(1-1)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를 받았던 말을 떠올려 보고, 순위를 적어 봅시다.

1위 :

2위 :

3위 :

활동(1-2) 내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 주었던 말을 떠올려보고, 그 때의 상황을 기억하여 실제 한 말을 적어 봅시다.

대상	내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
()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활동(1-3)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유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러한 용어가 어떤 문제점을 낳을지 생각해 봅시다.

※ 미디어를 활용한 ‘감성 훈련, 생각 수업’을 할 때 유의할 점

- 단순히 미디어에 흥미를 갖거나 감상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여유와 활동을 주어야 한다.
- 미디어를 감상한 후에 반드시 글로 작성하거나 직접 미디어를 제작하는 활동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 ‘나’를 통해 ‘우리’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제시해야 한다.

※ 미디어 활용을 위한 ICT 프로그램과 자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9/h2006091021580722020.htm>

☺ 익혀두면 좋은 프로그램 ☺

-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만남 ☞ 씽크와이즈
- 편리한 기능이 돋보이는 멀티미디어 수집기 ☞ 툼바의 재발견
- 신문 라이브러리 ☞ 한국언론재단의 e-NIE
- 체계적인 수업 아이디어 정리 ☞ MS 온노트

☺ 살짝 입력할 즐겨찾기 ☺

(1) 광고

- 한국방송광고공사(<http://www.kobaco.co.kr/>)
- 광고정보센터(<http://www.adic.co.kr/>)
- TV CF(<http://www.tvcf.co.kr>)

(2) 만화

- 만화 박물관(<http://www.comicsmuseum.org/>)
- 베스트 애니메(<http://bestanime.co.kr/>)
- 포털사이트의 만화 메뉴

<붙임 1>

♥ 내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줄 수 있는) 말은? ♥

내가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을 생각해보고, 위의 ()안에 가족 중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 중에 상처준 말을 떠올리며 생각해 봅시다!

대상	내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 내가 가족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

대상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에게 하고 싶은 말	
()에게 하고 싶은 말	

♥ 가족에게 편지쓰기 ♥

감동지수	5	4	3	2	1	생각 변화지수	5	4	3	2	1
------	---	---	---	---	---	------------	---	---	---	---	---

<붙임 2>

뮤직비디오를 보고

한편의 감동적인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1.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해 봅시다.

(1) 소년

(2) 소녀

(3) 선생님

2.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짧게 적어 봅시다.



3. 내가 소년이라면 선생님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말해 봅시다.



4. 내가 작가라면 어떻게 내용을 바꿀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5.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6. 선생님께 편지 쓰기

